

젊은 연극인들의 불꽃 도전 ‘문화예술공방 바람꽃’

“지치지 말라고 하셨죠? 힘들거라고...
알아요.
하지만, 우리 새로운 꿈을 꾸고 싶어요”

“지치지 말아라.”
극단 ‘타’ 단원이었던 배우 한중신(33)씨가 극단을 창단한다고 했을 때 선배 연극인들이, ‘타’ 대표인 정순기 광주연극협회장의 견내 준 말이다. 맞다. 지역에서 극단을 꾸려가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7년간 연극배우를 했던 터라 한씨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다.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지역의 젊은 연극인들이 뭉쳤다. ‘문화예술공방 바람꽃’이 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첫발을 내딛는다.

대표를 맡고 있는 한씨를 비롯해 연출과 희곡에 관심이 많은 장영은씨, 프리랜서 배우 이정진씨, 독립영화 배우로 활동하다 본격적인 연극배우의 삶을 꿈꾸기 시작한 강누리씨 등 4명이 한 배를 탔다.

지난해 5월 창단한 후 어렵게 돈을 모아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 사무실 겸 연습실을 냈다. 지역에서 지원금 없이 연극을 준비하는 게 녹록치 않은 작업이라 힘들기는 하지만 한 대표가 차곡차곡 모아놓은 자금이 좀자돈이 됐다.

“젊은 연극인들이 무쳐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끼리 고민도 하고, 글도 써보고, 연출도 해보며 다양한 실험도 하고 싶었구요.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연극인이 되고, 기성 극단들과 다양

한 협업도 진행해 보고, 연결고리도 만들고 싶었습니다.”

단체 이름 ‘바람꽃’ 앞에 ‘극단’이라는 단어 대신 ‘문화예술공방’을 붙인 건 연극 작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뮤지컬 등 좀 더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공방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만든다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연극에 입문하기 전

한중신 등 4명 극단 창단 광주 중흥동에 연습실 마련 19~24일 공동예술극장에서 ‘세상 무슨 일 있어도...’ 공연

방송 안무와 댄서로 활동하고 패밀리 밴드 공연팀에서도 활동했어요. 경계를 두지 않고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 장점을 살려 춤과 결합된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싶기도 해요.”

창단 공연은 오는 19~24일(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4시~7시, 일요일 오후 5시) 광주 예술의 거리 공동예술극장에서 열린다. 작품은 ‘크리스마스에 삼십만 원을 만날 확률’로 유명한 오세현(정 의로운 천하극단 결판) 대표 작가의 ‘세



19~24일 창단 공연을 앞두고 있는 ‘문화예술공방 바람꽃’ 단원들과 출연배우들.

상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지켜 줄거야 친구야. 오 작가는 젊은 연극인들의 행보가 의미있다고 하며 흔쾌히 희곡 사용을 허락했다.

작품은 일제 시대부터 6·25까지를 배경으로 한 마을에서 나고 자란 친구 4명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정을 지켜나가는 과정을 따뜻하고 재미있게 그리고 있다.

연출은 극단 ‘타’ 출신으로 처음 연출에 도전하는 최용규씨가 맡았다. 최씨의 첫 도전인 셈이다. 또 단원 이외에 정태석·이

현씨 등이 함께 출연한다.

“앞으로 작품을 무대에 올리면서 다양한 연출과 작업하고 싶습니다. ‘바람꽃’이 모두가 함께 배우고 공부하는 공동 창작 집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 격려처럼 우선은 지치지 않아야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한중신)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원.
www.facebook.com/baram0529. 문의 010-8652-411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것은 물이다

신형철 칼럼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제라도 깊이 소개돼야 마땅한 미국 작가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1962~2008)는 2005년 케니언대학 졸업식 축사를 다음과 같은 우화로운 시작했다. 어린 물고기 두 마리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나이 든 물고기 한 마리와 마주친다. 그가 어린 물고기들에게 인사를 건넨다. “잘 있었지, 애들아? 물이 괜찮나?” 그와 헤어지고 어린 물고기 두 마리는 잠시 말없이 헤엄쳐 갔는데, 문득 물고기 한 마리가 다른 물고기에게 말한다. “도대체 물이란 게 뭐야?”

물속에 살고 있으면서 정작 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물고기.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 가고 있는 현실(물)이라는 것은 그 대부분이 익숙한 일상과 그것의 권태로운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너무 익숙하고 진부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이 라는 것을 하기가 가장 어려운 대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것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상과 그 반복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그것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기 사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

흔히 인문학은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는데, 윌리스에 따르면 그것은 곧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대해 ‘선택’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생각하는 방법이란 곧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것. 어떤 현실과 맞닥뜨렸을 때 이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른 생각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같은 방식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상 생각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받은 인문학 교육의 진가라고 나는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성인으로서의 삶은 그저 편안하고 순조롭게 그럴싸한 모습으로 죽은 사람같이 살지 않는 방법, 무의식적인 일상의 계속이 아닌 삶을 사는 방법, 또한 자기 머리의 노예, 즉 허구한 날 독불장군처럼 유일무이하며 완벽하게 홀로 고고히 존재하는 태생적 디폴트세팅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이것은 물이다”, 나무생각, 2012, 66쪽) 인문학은 이런 것이다. 혹시 지금 이런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무수 콘텐츠 따위가 아니라 말이다.

<평론가·조선훈 문예창작과 교수>

임원식 광주시인협회장

12번째 시집 ‘다듬이질 하는 누이’ 펴내

“나는 나무들에서 시간을 배운다/ 집 안에 꽃나무 묘목을 심으면/ 봄이 다르고 여름이 다르고/ 가을이 다르다”(“단풍나무의 시간” 중에서)

광주시인협회를 맡고 있는 임원식(사진) 시인이 열두 번째 시집 ‘다듬이질하는 누이’(한림)를 펴냈다. 지난 2015년 시집 ‘어머니의 베를 소리’를 펴낸 지 1년 여 만에 새 작품집을 발간한 것이다.

부단한 창작 활동에서 보듯 시인의 지적 성취에 대한 열망은 간단치 않다. 평소에도 임 시인은 “자신의 삶을 시를 쓰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할 정도로 시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이번 작품집에서도 시인은

이전의 작품에서 보였던 무위자연의 세계와 고향에 대한 향수 등을 기억과 성찰을 매개로 풀어낸다.

“단풍나무의 시간”에서 보듯 화자는 ‘나무’라는 신성한 존재로부터 시간의 섭리를 배워간다. 화자는 나이 들어 가는 것을 모르지만, 꽃나무는 계절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간다. 자기 성장과 적극적인 표현이 형성될 때 시가 주는 울림은 간단치 않다.

고 오승운 화백의 그림 ‘다듬이질’을 소재로 형상화한 ‘다듬이질하는 누이’는 상상과 기억을 매개로 자신의 지적 세계와 존재의 근원을 탐색한다. 이를 일컬어 최



동호 평론가는 자기 반성의 거울로 시를 쓰는 것이며 자기 정화의 방법으로 시를 쓰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평론가인 한양대 유성호 교수는 “우전(宇田) 임원식 시인의 시편들은 남다른 기억을 통해 존재론적 성찰의 음역(音域)을 폭 넓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단연 주목할 만한 세계”라면서 “오랜 시간 축적해 온 그만의 지적 안목이 남다른 깊이를 지니고 있음을 말해주는 유려한 지표”라고 평한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전남대 ‘광주·전남 특

우수독서클럽 6개 팀 선정

전남대학교가 지난 한 해 범 시·도민독서운동 ‘2015 광주·전남이 읽고 특 하다’(광주·전남 특)에 참여한 독서클럽 138팀 가운데 6팀을 우수클럽으로 선정, 시상했다.

영예의 최우수상에는 주부 모임 ‘독서백편’ 팀이 수상했고, 송일고 학부모회 ‘도래샘’과 지산중 학부모회 ‘책 향’ 팀이 우수상을 받았다. 또 전남대 공과대학 학생모임 ‘독서멘토링’, 목포 육암초 학부모회 ‘다독다독’, 동신고 학생모임 ‘개화’ 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 독서클럽 선정은 성실한 독서모임과 서평 작성 등 독서활동을 가장 큰 평가지표로 삼았으며, 사업에 대한 협조도와 ‘광주·전남 특’ 행사 참여도를 평가에 반영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중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